

너를

87

2020 하반기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이 김혜정

퍼넌날 2021년 3월 8일

만든이 김신아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 전화 02-338-2890~1

상담 전화 02-338-5801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력성폭력' 대응 활동의 의미

8 #낙태죄없는2021년 "낙태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12 "원칙보다 큰 예외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17 나와 당신의 권리를 위한 싸움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후기

21 등대지기들의 시간 :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후기

26 뽀뽀!상담소

28 열린터 다이어리

28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31 2020 상담통계

35 생존자의 목소리

35 True Survivor

41 #미투

44 [광고]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45 성문화읽기

45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 인터뷰

51 류호정 의원 인터뷰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야죠"

56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간을 거스르다> 온라인 전시장 오픈 그 후

59 시끌시끌 상담소

59 상담소 최초 시도, '온라인' 한해보내기

64 '동료를 인터뷰하다' : 격월 활동가 인터뷰 후기

68 아낌없이 주는 나무

72 훈훈한 기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력성폭력' 대응 활동의 의미

이미경_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소장, 이사

9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은 커다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대하고 끝내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무원 성폭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공무원 성폭력 사건 대응 활동을 해왔던

지리산 활동가의 글을 전합니다.

거의 모든 성폭력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단체장이 갖는 위력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8년 3월 5일, 한 방송사 인터뷰 #미투로 세상에 알려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2020년 4월 23일, 사퇴선언과 함께 드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무원 성폭력 사건, 2020년 7월 8일 피해자가 고소한 다음 날, 실종소식과 함께 사망으로 충격을 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공무원 성폭력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 사건 모두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상담소는 위 세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지사와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 공대위를 꾸리고 공동사무국으로서 대책회의 및 공판모니터링, 의견서와 탄원서 조직, 언론대응,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대규모 집회 등을 진행해왔다.

부산시장 건은 공대위 단체의 일원으로 대책회의, 기자회견, 연대성명서, 관련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소는 엄청난 위력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 곁에서 연대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의 근본 요인을 파헤치고, 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한 예로 지난 7월 13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관한 1차 기자회견 이후에는 상담소에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아직 발인도 안 끝났는데 꼭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했느냐”,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 “피해자의 신상을 대라” 등등... 전화로만 항의하는 것을 넘어, 10년 넘게 함께 해오신 분들 중 몇 분은 후원을 중단 및 탈퇴했다. 각종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을 해온 원로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마저 우리 공대위에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음은 우리 사회가 갖는 희망의 증거이다. 특히 2030 세대의 반응은 아주 특별한 감동과 힘이 있다. 어떤 분은 “내가 만약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는다면 누군가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옆에 단체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든든하다”라며 신입사원의 빠듯한 월급을 쪼개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셨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상담소가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잘못된 권력의 영

향력에 분연히 맞서는 이유이다. 어떤 위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여성인권단체로서 당연한 활동이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게 하고, 또 가능케 만든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이다. 피해자들의 아주 특별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고, 성찰과 변화를 요구한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런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항소심 유죄선고 이후 입장문(2019.2.1)

“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더 바라도 된다면, 지난 2달여간 지켜본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 사회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엄벌추구 기자회견(2020.6.9)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는 과정을.” 서울시장위력성폭력 피해자, 2차 기자회견(2020. 7.22)

우리 사회가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 작업과 함께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당장 멈추는 일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정부 여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장(葬)을 반대하는 596,410명의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강행했다. 모 방송사에서는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 문제에서 “피해자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피해호소인으로 부를 것인가를 논하라”라는 문제를 냈다.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물론, 지원단체와 피해자 지원 변호사에 대한 모욕과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시장 앞에서 진행했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길을 더 나아간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가해를 멈추라”는 준엄한 말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하기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는 절대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연대하여 문제제기하고, 실천할 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미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 성폭력을 조장하는 직장 내 성차별적 구조 문화 변혁,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미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 구체적인 대응 활동은
상당소 홈페이지 및 블로그(stoprap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없는2021년 "낙태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앞_성문화운동팀 활동가

2021년 1월 1일로 '낙태죄'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함께 열망하고 애써왔던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느라 숨가쁘게 활동했던
2020년 하반기 소식을 앞 활동가가 전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1월 1일,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하는 첫 날입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시한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조항은 아직 남아 있지만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 것이죠.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을 환영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연대 활동가들(가운데는 앞 활동가)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만든 것은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 모든 활동을 다 담을 수 없어 이 글은 제가 참여했던 모낙폐 활동을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든 모두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는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고, 국회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치열하게 투쟁하는 나날이었습니다.

10월 8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사
의 진료거부 인정 등을 통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모낙페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개정안을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 릴레이 의견서 제출,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9월과 10월 각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
은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두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
는 내용의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
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당한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 활
동가들은 낙태죄 폐지 투쟁이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 4곳(보신각, 헌법재판소,
세종문화회관, 청와대)과 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
다. 동료들의 든든한 연대가 있어 위축되지 않고 모낙페 활동을 이어나갔습
니다(참고로 현재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
니다).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모낙페는 국회 모니터링
과 대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각 의원실과의 간담회,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성명 및 논평 발표, 온라인 액션, 4시간 이어말하기·국회 밖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필요성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를
알렸습니다. 캐나다, 영국, 맨섬, 아일랜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궁금한 분은 닷페이스 유튜
브에서 모낙페가 함께한 라이브쇼와 요약본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정의당 이은주 의
원안 등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

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
되어 소관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시한 내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닷페이스 라이브쇼
"다른 나라들도 낙태하면 처벌할까?"

2021년에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두 조항을 비롯한 형법 제27
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출생
·양육·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밀린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랍
니다. 다행히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처벌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오늘은 축배를 들
고 싶습니다. 치얼쓰! 🍷

“원칙보다 큰 예외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신아_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2020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진전이 있던 동시에
‘종교기관예외조항’이라는 새로운 장벽을 마주한 해이기도 합니다.
‘종교기관예외조항’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신아 활동가가 짚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때

최근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 컨셉으로 출시된 ‘이루다’라는 챗봇이 성희롱을 비롯하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어 거세게 비판받고 결국 2주 만에 운영 중단되었다. 제작회사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라는 어플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약 100억 건을 토대로 AI를 개발했다고 한다. 챗봇 ‘이루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학습했던 것임을 고려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러낸 사건이었다.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에 대한 상식을 두텁게 만들고 평등한 관계와 사회를 고민하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고용, 교육, 행정, 재화 용역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법률을 통해 사안에 개입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소수자 개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워왔던 차별과 혐오를, 제도 안에서 방관하지 않게 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공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법이 가닿지 못하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어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길까? 학교 내 여성 혐오에 지친 여성 청소년, 동일가치의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비롯한 대우에서 차별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한 해고나 진료거부 등을 당해왔던 HIV/AIDS 감염인,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출입 거부를 겪었던 장애인... 소수자들 삶의 면면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20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진전이 있던 해였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그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 의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강력하게 권



2020년 7월 24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고했다. 차별금지법 발의가 처음은 아니다. 2007년 이후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와 철회를 거듭해왔다. 한 보도에 따르면 ‘폴뿌리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인권조례 역시 201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49곳에서 입법예고 후 철회되었으며 해가 바뀔수록 철회 사례가 늘었다.¹

제도권이 차별과 혐오를 방관하는 사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 혐오, 이주민 혐오, 빈곤 혐오 등 현상을 명명하였다. 강남역 이후 거대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었고 퀴어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를 확장하는 등, 돌이켜보면 소수자들의 광장도 점차 가시화되고 넓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에 대

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원칙보다 큰 예외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2020년 12월 이상민 의원이 ‘종교기관예외조항’을 넣은 차별금지법을 발의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²되었다. 차별의 예외 조항은 현재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평등법 시안에도 있지만, 직업상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누적된 차별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국한하고 있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은 ‘종교 집회’를 비롯하여 “(종교)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의 공적 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기에 ‘종교 행위’ 자체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차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게 되면 종교나 신앙을 명분으로 하여 공사영역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 및 의료기관 등은 전체 1,181개이며 전체 중 53% 정도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다.³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에 이러한 학교 등이 모두 포함되기 된다면, 해당 기관 안에서 소수자와

1) 한겨레 신문, “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있다...49개 지자체 7년 동안 71건 ‘철회’” (2020.04.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475.html#csidxf5c355673be2e5f827683a44a3daeb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475.html

2) 서울신문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종교 전도는 적용 제외, 2020년 12월 10일, <https://news.v.daum.net/v/20201210181103048>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020년 12월 23일

약자를 향해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종교, 신앙, 신념의 이름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예외를 두려는 시도는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다. 2020년 12월 23일 열렸던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한 토론자는 의료인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종교기관예외조항의 문제점을 함께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원칙보다 큰 예외, 원칙보다 유명한 예외는 안 된다”.

그렇다. 이유는 명확하다. 보편적인 인권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수 십년 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왔던 것처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후기

나와 당신의 권리를 위한 싸움

신홍누리_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참가자

9

2020년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성별 규범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몸을 찾기 위한 8주 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고립되기 쉬운 요즘,

참가자 신홍누리 님께서 따뜻한 용기가 차오르는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추억은 커녕 온전한 일상을 살아내기에도 어려운 올 한 해였지만, 같은 이유로 지난 여름 참여했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프로그램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일상 대응 연습>은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상황대응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동료이자 지지자로서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며 전에 없었던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코와 입을 단단히 막느라 더운 숨을 토해내기도 버거웠던 그 여름에 함께 땀 흘리면서 몸을 움직였던 자기방어훈련 동료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는 딸을 무술 감독으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의 바람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7년 간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웠고, 남들보다 큰 키와 몸, 쉬이 주눅들지 않는 성격 덕에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지방 출신이자 1인 여성가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라. 그러나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 근무하던 초기에는 재판을 다녀오기만 하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문단속을 수 차례 반복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고, 지하철 출퇴근길에서의 성추행이 일상이 되자, 매번 이런 일에 감정을 소비하는 것에 지쳐가기만 했다. 그러던 중 내가 당시 찾았던 해답은, 나에게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자기방어가 필요하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안을 감추고, 숨기는 일이 익숙해질 쯤 나는 활동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어색하고 불안했던 그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공지를 보게 되었다. 해야 하는 이유보다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일었고, 그렇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변의 시선이 부끄러워 운동을 그만두고 난 이후, 내 몸이 이렇게나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다.

서로의 컨디션을 묻고, 스트레칭 하고, 이야기 나누고, 소리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 배운 것을 실습해보고, 그 느낌을 나누는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나 스스로를 더 이상 불안을 감추는 약자적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조력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일상 속의 수많은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기도 했다. 과거에는 무심히 지나갔던 주변의 상황들을 예민하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예민해진 감각들이 곧 누군가와 연대할 수 있는 힘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더 큰 충전제가 된다는 것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훈련 중, 공격과 방어 자세 익히기

자기방어훈련을 들으며 자기효능감이 점점 충전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 배운을 하러 서울역 대합실로 향하던 중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몰카 범이에요!!! 잡아주세요!!” 그 소리가 들린 방향을 쳐다보자 내 방향으로 어떤 남성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순식간에 내 머릿속은 수능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 난 발목이 약해서 잘 못 뛰는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나의 무기인 큰 목청을 이용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남색 셔츠입은 남자 잡아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소리를 지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파악했다.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피해당사자는 모르고 있었고, 경찰 신고는 아직이었다.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놀랐을 피해자에게 앞으로 사건이 진행될 과정, 피해자로서의 권리 등을 안내했다. 동시에 경찰에게 인상착의를 전달하고, 도망친 방향을 전달해 지하철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해 결국 그 사람을 지하철 화장실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모든 사진이 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대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간

위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당사자에게 처벌 의사와 디지털포렌식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남기고 기차를 타러 떠났다. 나는 피해자에게 받았던 연락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들을 보냈다. 오래지 않아 도착한 답장에서 나는 자기방어훈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도와주셔서, 이것이 제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피해자를 막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끝까지 해보려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일상을 스미는 폭력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에게 내재된 힘이 사실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끼며 나를 위해, 나의 동료들을 위해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동료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었다. 🙋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후기

등대지기들의 시간

감이_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9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교육:

흔들리던 성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가

8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자인 감이와 교육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학생 때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과 가해자 사과문 작성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페미니즘을 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언어의 세계에 허우적 대고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한 세미나가 성폭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전부였을 때였습니다. 그 때는 성폭력 사건 개념화, 피해경험에 대한 공감, 가해자 다루기 등 조직 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건지원자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에 참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부담감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몇 겹씩 껴입고서 괴로워하다가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가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념 사진

아직도 그 일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조직 내 사건지원자들이 기대하는 상담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번 심화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걸쳐 흩어져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조직 내 사건지원자들에게는 연결망이 필요하고, 그 구심점 혹은 만남의 장이 바로 상담소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노하우와 자원을 가진 상담소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각 조직에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사건지원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서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도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화교육은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책임연구원과 함께 커리큘럼 기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지원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조직문화, 규정 등을 점검하는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성주의상담과 피해자리더십에 대해 공부도 하고,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도 마련했어요. 사건지원의 지도를 그려보며, 관련한 법률도 공부했습니다. 강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의 구성도 강의 대 워크숍을 1:1로 하고, 각 강의에서도 토론과 강의의 비율을 1:2로 구성해서 교육 참가자들의 고민과 의견, 질문이 활발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끼리도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직접 나눌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며 위세를 떨치던 때라 첫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8.15에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교육은 진행해야 했기에 온라인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우왕좌왕했지요.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는 것부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음이 심해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회의실 시간 설정을 잘못해서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에 닫혀버리기도 했습니다. 등 뒤에 진땀이 흥건해서 서늘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어렵게 진행된 교육이었지만, 교육에 참가한 분들의 면면은 정말 멋지고 빛이 나서 컴퓨터 모니터를 뚫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교육의 부제는 “흔들리던 성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였는데, 등대처럼 우직하게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 지원해 온 사건지원자들을 실제로 만났던 것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진지하고 다정하게 듣고 공감해주는 사건지원자 동료들을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상담소 블로그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교육 내용 후기

이 글을 마치기 전에, 교육 수료식 중 교육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등대지기에게 보내는 편지(Messages from the LightKeepers)”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외롭게 조직 내에서 사건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면을 빌려 심화교육에 함께 해주셨던 교육참가자들과 강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육을 들으면서 공동체적 해결,
조직 내 해결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에는 여러분 각자가 속해있는
그 하나의 공동체의 개별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그 사회,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그리고 제 동료와 친구들이 겪는 문제가
어떻게 재발되지 않고, 세상이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세상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피해자 관점의 이야기를 어떻게 외부로 확산하고,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친구들과 동료들과 연대인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유선

한계는 부끄러운 것, 모자란 것이 아니다.
내 한계를 설정하고 타인을 만나자.
어렵다면 솔직히 털어놓을
지지체계, 조력자를 만들자.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exercise)하고
나를 조금씩 넓혀서
잘 돕기 위한 상상력을 키우자.
조급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것이다.
지칠 때면 잠시 쉬자.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에 뛰어들게 됐는지
나의 목적을 다시 들여다보자.

- 승희

사건의 옆, 피해자의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대한민국 전체가 엉망이라고 통치고 싶었는데
교육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낼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어.
다음에는 더 평등한 관계를 맺길,
피해자에게 통제력과 신뢰감을 주길,
피해자의 생존을 응원하길 바랄게.
몇 년이나 진짜. 고생많았어.

- 보라

- 7월** 7/7 사법부가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대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
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7/13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7/2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7/24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7/2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촉구 공동행동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8월** 8/8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수료식
8/17~21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흔들리던 성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
8/24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9월** 9/18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번역, 발간
9/28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10월** 10/5~25 온라인 플리마켓
10/8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10/12-11/16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 시위
10/1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0/20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10/30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된다
상담소

- 11월** 11/9-18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 유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11/11-30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11/19, 26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1, 2회
11/19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려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11/21-22 주짓수 투데이 클래스 "MY GROUND"
11/26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27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 12월** 12/1-31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12/2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활동가 경찰 소환 대응 액션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12/3, 10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3, 4회
12/4 온라인 한해보내기
12/8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12/8~11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12/17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12/1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빔 퍼포먼스
12/2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12/22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저자와의 낭독회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12/2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도 사태 긴급 기자회견"
12/30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12/31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온라인 카운트다운 파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토리

이번 호의 열린터 이야기는 또우리* '토리'가 전해주었습니다.
(펭귄을 보고 싶은 토리의 꿈을 함께 응원하며 읽어주세요.)

*상당소와 열린터에서는 쉼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또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린터에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집을 나올 결심을 한 건 제가 16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 저의 피해사실을 가족들 중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무작정 뛰쳐 나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경찰에 신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가출신고가 들어오자 제가 어느 쉼터에 있는지를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곧 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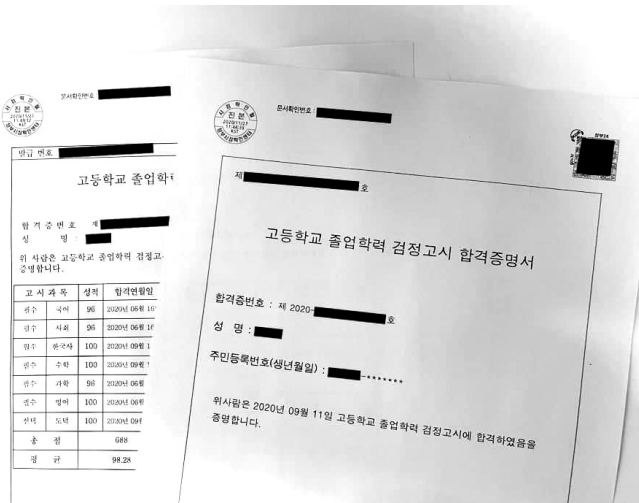
그 후에는 어머니가 저를 폭행했는데, 같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의 피해사실을 고백하였을 때 어머니는 '너의 기억이 정확하냐' 정도의 말로 일축했고 경찰관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냐'

는 말을 하며 미성년자인 제가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 날 저는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2차 가해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폭행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열린터에 들어간 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학교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제 알람이 같은 방 생활인 중 가장 빨리 울렸기 때문에 알람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빨리 끌 수 있는 위치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급식을 목빠지게 기다리며 4교시 수업을 꼬르륵 소리와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교할 때 제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자전거를 타러간다고 대답했기에 저는 한동안 매일 자전거타러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린터로 돌아오면 아무 생각없이 쉴 때도 있지만 식사당번인 날은 직접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사당번이었던 날에 양파를 4시간 볶아 만든 화심의 양파스프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 양파스프가 왜 인기 없었는지 알 것도 같지만요.

이렇게 열린터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저는 열린터에서 개인의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학교에서도 열린터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열린터에서 미성년자는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했기에 그 때부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어머니에게 상의한 후 자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머니에게 요구한 조건은 '집에 오빠를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은 한 달 만에 깨졌고 지금도 가끔씩 깨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동안은 집으로 돌아온 걸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린터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어땠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



● 토리의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다. 고등학교에 계속 다녔다면 언젠가 적응하는 날이 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가기 전 1년 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 대학에 간 후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정확히 생각해 놓은 것은 없지만 꿈은 있습니다. 언젠가 남극에 가서 펭귄을 보고 싶습니다. 펭귄을 볼 그날까지 파이팅!!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총 86,549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0년 전체상담은 1,324회(779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58회(715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8%입니다. 상담 지원의 내실화로 지속지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상담 건수가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횃수’는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상담을 포함한 것이고 ‘건수’는 초기 상담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담현황

표 1 최근 3년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도	상담횟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총	4,683	3,166	2,816	89.33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여성 피해자  93.6%
남성 피해자  6.1%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715건 중 669건(93.6%)이 여성 피해자입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피해자로, 총 506건(70.8%)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1%(43건)로 2018년 6.1%, 2019년 6.8%에 이어 6%대입니다.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 중 남성  93.1%
남성 가해자 중 성인  77.2%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715건 중 666건(93.1%)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성인 남성 가해자가 552건(77.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67.8%
대리인이 상담의뢰  30.6%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 중 485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219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장과 연관된 관계에 있는 사람, 이웃 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2019년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67.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247건(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로 강간 피해 상담 246건(34.4%)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8년 28.5%, 2019년 31.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33건(13.8%)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중 성인 가해자 비중  81.5%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583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89.1%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7건(89.1%)으로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09건(38.9%)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77건(14.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주로 학교 내 피해가 높았는데 2020년에는 친족에 의한 피해와 인

터넷으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똑같이 13건(23.5%)씩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17건(33.3%), 11건(47.8%)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자 지원내용

2020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복체크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395건으로 많았습니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여 좀 더 긴밀한 자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한 경우입니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2020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중강간·중강제추행> 주제 분석을 포함한 자세한 통계분석은 추후 홈페이지(sister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rue Survivor (진정한 생존자)

WR

영화 ‘로켓맨’을 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3번 이상 보았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약물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를 받으러 온 엘튼에게 상담사는 묻는다.

“Why are you here?(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한다.

“I want to get better(더 나아지고 싶어서요).”

그 대답에 상담자는 한 가지 더 질문한다.

“How was your childhood?(당신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요?)”

이 질문에서 잠시 멈추고 나에게 질문해 보았다.

“How was my childhood? (내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나의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나이 일곱 살 때 친오빠는 내게 사랑놀이를 하자고 했다. 나보다 네 살 위인 오빠는 사랑놀이라는 명목 하에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져댔다. 어렸지만 뭔가 이상했고 싫었던 모양이다. 여러 번 고민 끝에 엄마에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용기 내어 말했다.

"엄마, 오빠가 자꾸 사랑놀이 하잖."

"사랑놀이?"

불행히도 엄마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에서 나가버렸다. 방에 홀로 남겨진 나는 그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빠와 엄마는 저녁 9시가 되어야 퇴근해 집으로 왔고, 학교 다녀오면 오빠랑 단둘이 집에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중학생인 된 오빠는 날로 난폭해져 갔고, 나를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오빠의 폭력과 성폭력이 날로 거세어 지자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겐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해지는 동네 골목에서 엄마의 저녁 먹으러 오라는 부름 소리에 같이 놀던 아이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쪽으로 걸어갔지만 아파트 3층에 살았던 나는 도저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3층과 4층 사이 까치밭로 서서 유리창으로 주차장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찰칵 열리는 소리가 나며 뒤돌아보니 괴물 같은 사람이 헛웃음을 지며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서는 도망가라고 소리치지만 그 괴물을 보는 순간 내 몸은 마음과 달리 얼어붙어버렸고 그 가 조종하는 대로 난 계단을 내려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괴물은 내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자기 방에 데려가 때리기 시작했고, 늘 하던 대로 때린 다음 옷을 벗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강간을 한 다음 멍든 부위에 물파스를 발라주며 어김없이 똑같은 말을 했다.

"말하면 죽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컸던 그 괴물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일 정도로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퇴근하고 온 엄마와 아빠는 내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울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자는 줄로 생각해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갔다. 저녁도 굶은 채로 무수히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생리 전까지 친오빠의 지속적인 폭행과 강간은 계속 이어졌고, 부모님의 잦은 다툼, 폭력도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들었다.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미칠 것 같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글쓰기였다. 일기를 자주 썼다.

고등학교 때 콘서트가 끝나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내 방으로 데려가 말했다.

"네 일기를 봤어."

드디어 봤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잠깐 기대하던 찰나에, 엄마가 또 입을 열었다.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오빠가 했던 똑같은 말이네. 왜? 난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겨야 하는 걸까? 엄마가 알았다는 것은 좌절감만 초래했을 뿐이다. 오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범죄는 고요함으로 덮여졌으니 말이다. 난 그렇게 또 한 번 크게 엄마에게 실망을 했다.

마음이 닫힌 채로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한 어린아이를 가슴 속에 묻어두고 가둬두고 방치하며 세월은 흘렀고, 성인이 된 나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 괴물을 떠나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시시때때로 뉴스에서 '성폭행' 혹은 '강간'이란 단어를 보면 난 무기력해지며 트라우마로 며칠씩 누워있기도 하고 자주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나를 엄습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결혼하고 나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자라라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을 괴롭게 했다.

어느 날, 내 안의 분노로 남편과 크게 싸운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더니, 술도 잘 마시지 못하는 남편이 괴로운 나머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다. 그때 난 결심했다. 남편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나의 이야기를 모르면 끝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술이 깬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고, 듣고 너무 많이 놀라지는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탁했다.


남편에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고, 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떠한 판단의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고 수용해주었으며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었다.

그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나에겐 늘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이야기를 알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아파 해주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주었다. 내가 가장 잘 한 일은 남편에게 나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한 일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하면 죽어" 세뇌 되어있던 나는 남편에게 얘기한 후 친오빠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칼을 내 등에 꽂을 것 같고 우리 집에 불을 지를 것 같은 말도 되지 않는 공포심을 느꼈는데, 남편은 나에게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찾아온다고 해도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거라며 안심을 시켰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고 내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렇게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 공부도 하며 나날이 건강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제야 일상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 내 문제에 사로 잡혀 있고 내 문제가 너무 커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들의 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종알종알대는 아이들의 말도 들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즐거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아픈 기억이 올라올 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면 지금은 아프고 괴로워 잠깐 누워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길지 않고 짧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난 이렇게 친족 성폭력 생존자로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다.

영화 '로켓맨'을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인인 엘튼이 어린 아이인 엘튼을 만나 안아주는 장면이 있다. 성인이 된 나도 어린아이인 나를 만나 안아주었다.

친오빠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 저녁도 굶은 채로 벌벌 떨며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에 까치발을 들고 서서 밖을 바라보며 애타게 엄마, 아빠를 기다렸던 열두 살의 여자아이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많았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미안했다고. 너를 오랜 세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너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그 아이는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고 보호 받아야 할 아이였다는 것을. 그렇게 우린 화해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이제 함께 환하게 웃는다. 열두 살의 나도 엄마가 된 나도 True Survivor(진정한 생존자)로 말이다. 

이젠 웃는거야! 스마일 :)

#미투

이레

어렸을 때부터 자전적인 소설을 쓰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 진지하게 출판사에 전화도 해봤을 정도로 진심이다. 그 때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우리 가족 내용을 담고 싶었고 나의 연애와 결혼, 2세의 행복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 물건을 잃어 버렸다고 내게 도움을 청하던 그 학생은 비상계단으로 가니 표정을 바꾸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나라고 말했다. 어린 마음에는 내가 정말 잘못된 줄 알았다. 물건을 가져간 줄 알았다. 그 날 이후로 나는 혼자 비상계단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 지금 생각해 봐도 기가 막히지만, 당시 우리 엄마는 성폭행을 당한 게 큰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설명해 줬다.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 아무런 트라우마 없이 남자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물론 지금은 엄마에게 사과를 받았다. 가끔은 울적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이다. 친구를 통해 처음 성인 영화를 접했다.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 이후로 나는 남자아이들이 무서웠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성끼리 짝꿍이 되었는데, 자리 바꾸는 전날이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천운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말이다. 무심했다. 1년 내


내 남자와 짝을 했다. 몇 명은 눈도 못 마주쳤다. 토론하라는 시간은 정말 옛 같았다. 한 명도 힘든데 뒤돌아서 내 책상에 팔을 가져다 대는 것.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 무서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소원>을 봤다. 처음 공황을 느꼈다. 숨이 안 쉬어 졌다. 눈물만 났다. 친구들에게는 “주인공 실제 이름이 ‘이레’라서 내가 감정 이입을 더 해서 그래”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사실 그게 아닌데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20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행복했다. 둘이 있는 시간만 빼고 말이다. 둘이 남겨질 때면 늘 불안했다. 남자라는 이유가 다였다. 하지만 페미니즘을 접하고 많은 게 달라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트라우마가 올라왔다. 두려움에 잠을 못 이뤘고, 꿏었던 수면제를 찾기 시작했다.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날 때 한국성 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초기 상담 전화를 걸었다 꿏었다 반복했다.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있고 진입 문턱이 낮았지만, 내가 정말 작았다. 내가 너무 작아서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들었다. 겨우 상담을 시작했을 때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다. 나의 힘듦의 정도를 평가 받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해 주었다.

상담소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다녀왔다. 1시간 대화가 얼마나 효과 있을까 싶었지만 23년간 안고 살았던 것들이 일부 가벼워졌다. 6개월 간의 상담은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은 물론이고, 건강한 연애를 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나면 지난날 서운했던 감정도 풀어졌다.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다. 덕분에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나와 비슷한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상황

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글’이다. 문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괜찮다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비밀 메모장에 오래 전부터 적어 놓은 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는 데 용기를 불어 넣어준 한국성폭력상담소에게 정말 감사하다. 계획했던 이야기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자전적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다.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98년생 최이레’를 내는 것이 목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식지 나눔터 88호

생존자의 목소리 두고 안내

여기 이곳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식지 <나눔터>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에 실리게 됩니다. 본 코너는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삶을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과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원고 작성 및 게재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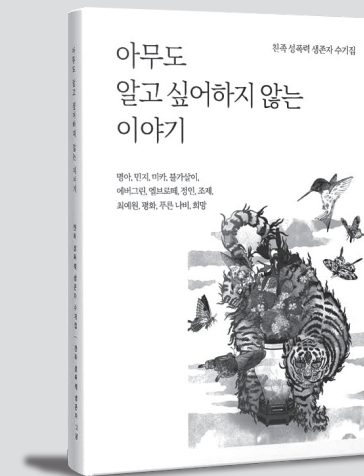
형식 :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 A4 3매 이내 (1회 게재)/ 6매 이내 (2회 게재)
보내실 곳 : 이메일 f.culture@sisters.or.kr
문의 : 성문화운동팀(02-338-2890)
기간 : 2021년 5월 31일까지

- 원고는 회원소식지 나눔터, 상담소 블로그에 게재됩니다.
- 작성자명 (별칭도 ok)을 기재해 주시고,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분량과 상관없이 원고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3만원 기프트콘)
- 피/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한 제외하고 작성해주세요. 특정인을 추측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는 편집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메일 (소통용), 연락처 (기프트콘 지급용), 주소 (나눔터 송부용)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와의 인터뷰

저자 : 푸른나비, 민지
인터뷰/정리 : 유랑, 신아



9

2020년 12월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가
텀블벅 펀딩을 683% 초과 달성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생존자 열두 분이 기획, 원고 작성, 편집, 펀딩과 발송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수기집 저자들을 나눔터 기획팀이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텀블벅 후원이 성황리에, 683% 초과 달성하며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상하던 대로인가요?**

푸른나비 : 저는 1,000명 기대했습니다.

민지 : 저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저는 100명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만 알음알음 살 줄 알았죠. 가족이나 친구들 이렇게만.

푸른나비 : 2달 동안 매일 홍보했어요. 집에서 못하니까 회사 끝나고 카페에 가서 앉아서 홍보글을 매일 썼던 것 같아요. ○○○ 강사님께 개인 메일까지 보내서 사시라고 하고, ○○○ 박사님한테도 우리 책을 알리자며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요. 처음엔 연락이 안 왔는데 다른 분이 보내니까 오더라고요. ‘아, 여러 명이 하면 해주는구나’ 하면서 ‘계속 들쭉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1년 정도 기간 준비와 제작을 하셨잖아요.
푸른나비님이 다른 생존자들에게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
수기집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푸른나비 : 2017년 작은말하기 공간에 오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7-80% 정도로 늘었어요. 미투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성폭력 생존자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존자들이 말을 하려면 작은말하기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져야 하고 씬터¹도 네 군데 밖에 없으니까 더 많아져야 하고, 공소시효법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혼자서는 힘든 일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모았고, 파급력이 있으려면 책이라는 것이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이야기 하다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더 반갑죠. 슬프지만 반가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 보여줄 수 있는 창작물을 통해서 생존자들에게 힘이



●
인터뷰 중인 유랑 활동가와 민지 님과 푸른나비 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책을 제작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어요?**

민지 : 머릿 속에서 계속 떠오르던 일이었지만 어렸을 때의 일을 세세하게 정리해본 적이 없었어요. 말로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짜르르 정리해 보니까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억울함과 분노는 남아있지만요. 제가 겪은 피해와 어렸을 때의 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20대 후반이 된 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대로 이 일을 묻고 갈 수는 없다, 이걸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글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에 고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공소시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분께도 여쭙보고요.

친족 성폭력을 비롯해 모든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력의 피해자가 있는 이상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저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 것도 할

1) 19세 미만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현재 전국에 네 군데 있습니다.

수 없는데 폭력 피해 경험만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프로젝트 하기를 잘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나요?**

민지 : 많은 사람들이 사 주신 것. 책 이름이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도 보고 돈으로도 보고 하니까 신기하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푸른나비 보며) 하자는 거 따라가야지. (웃음)

푸른나비 : 어쨌든 말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해요. 말해서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방법이라고요. 제가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너희들이 나를 막 대해? 그런데 나 생존자야.’ 이렇게 버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간절히 말을 하자고 해야겠다는 확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민지님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아까 민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 안에도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저도 8살 때부터 말 못했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대한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기억이 날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걸 무시하고도 잘 살 수 있는 법을 알고 내가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아이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그래, 이야기하자, 말하자 분명히 언젠가 물꼬가 트일 거야, 언젠가 광장에서 만나리. 요 단강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만나리’. 그렇게 바뀌 생각하면서 맨날 생존자의 언어를 궁리하면서 와요. ‘어떻게 잘 설득해서 여기 오게 할까, 생존자 전도사가 될까’ 하면서요. 페미니즘에서 쓰는 ‘발화’, ‘담론’ 이런 어려운 말을 저는 못 쓰지만 그냥 생존자 언어를 찾자고 생각해요. 지금은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어요. 아무런 압력도 없이 스스로 책을 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요. 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우리끼리 기획, 편집, 펀딩, 글, 그림 다 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수기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나요?**

민지 : 2차 가해를 하기보다는 그저 아팠고 힘들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곁에 제시면서 경청한다는 느낌으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경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푸른나비 : 이 책을 기반으로 다른 곳에도 폭력이 아니라 ‘말하기 세포’가 자라나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다 폭력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기 세포가 된 것 같아요. 점점이 모여서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생존자들이 다 자기 책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탄, 3탄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푸른나비님의 광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민지님도 그 광장에 가고 싶으신가요?**

푸른나비 : 2019년에 ‘페미시국광장’을 하셨잖아요. 열 번 중에 하루만 빼고 제가 아홉 번 다 참여했거든요. 광장을 다 살펴봤죠. 마이크는 얼마나 있고 몇 명이 필요한가 저건 돈이 얼마 들까 이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과 나와야 된다”고 작은말하기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랬죠.

민지 : 저도 광장에서 만나는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페미시국광장처럼 장소 하나 빌려서 집회 신고도 하고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 어떤 폭력 피해 생존자들 모두 모여서 자신이 겪었던 폭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 친족 성폭력부터요. 내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차차 넓혀가는 거죠. 일단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씩.

푸른나비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되는구나. 그 말처럼 우리를 끌어들이 수 있는 표어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다’, ‘우리가 산증인이다’ 이럴까? 주변 생존자들을 달달 북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제 평생 50년 동안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것만 이루어져요. 생존자 일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 기도했던 모든 일은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나서 하는 거겠죠. 다들 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데. 🙏



저자와의
온라인 낭독회 보기

푸른나비님과 민지님은 서로 행복하냐고 묻고,
행복하다고 답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서로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요.
두분의 깊은 연대와 우정에 저희도 행복해졌던 인터뷰였습니다.
두분과 함께 생존자의 광장, 해방의 광장으로 나갈 날을 고대할게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낸 국회의원, 류호정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야죠”

인터뷰_오매, 앵, 지민



정의당 류호정 의원

,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소 활동가들이 만나 보았습니다.

12월 3일 상담소 국회의원회관 513호를 찾았다. 류호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의견을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게임회사 노동자였다가 정의당 비례의원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류 의원의 키워드는 청년/여성/노동.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이 그 안에 있다.

류호정 의원 _ 회사 안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말도 잘 못하고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너무 현타 오는 거예요. 들이받고 나가버릴까? 하다가 지금 당장 월세도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해결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안돼, 참고 다녀야 돼 회사’를 생각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말하지 못한 내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속으로 화가 쌓이는 거죠. 여성청년노동자들이 다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회사에서는 퇴사를 각오하며 말을 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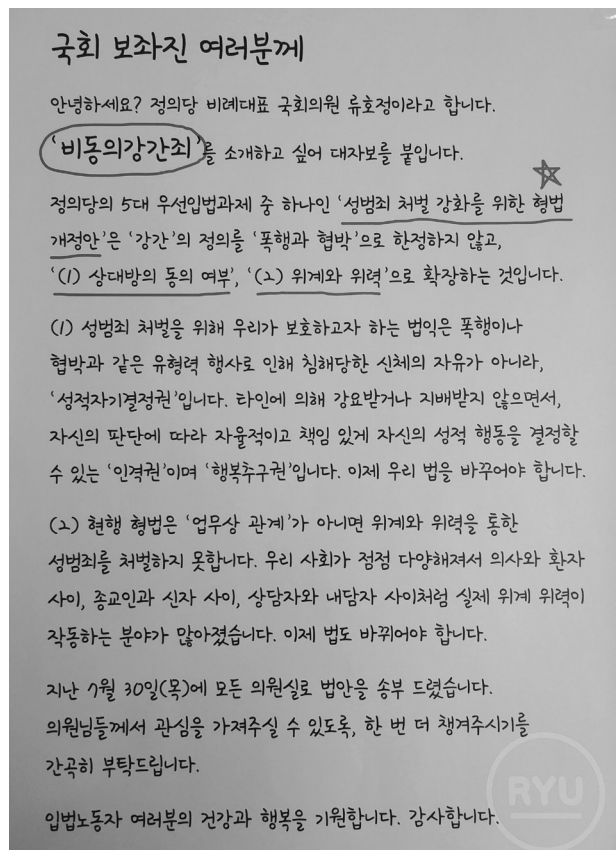
했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생각했던 걸 해야죠.

이 법안을 맡았을 때, 운명인가 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성희롱이나 성추행당하는 동료들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상황들을 보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형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비동의 강간죄 발의 기자회견 날, 그 때 그 회사분들이 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가 성폭력이라는 명제는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대표발의자 류호정 의원은
어떤 말로 국회의 논의를 열고 있을까?

류호정 의원 _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동의 있는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동의 없다면 강간이죠. 굉장히 당연한 말을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싶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설명할 때 주로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지를 설명해요. 폭행과 협박만이 구속 요건인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큰 처벌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의 여부가 구성요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의문점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저런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계약서를 써야 하나? 어쨌든 존재하는 반응들 아니까요. ‘동의 없음’이 법적으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떠한 심정적인 주장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꼭 드리는 거죠.



〈의원실 입구에 붙은 선명한 노란색 포스터. 바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반발이 심하다” “종교계 반발이 심하다”, 당적이 있는 분들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주로 해요. 그러나 당론이 되기 위해 힘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선뜻 발의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권인숙 의원, 윤재갑 의원도 그랬고요.

여당과 여론을 움직이려면 대자보나 퍼포먼스나... ‘쇼’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뭐든지 해야 해요. 법안이 묻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야 해요.

류호정 의원이 보기에 젠더폭력은 이제까지의 정치가 마주한 장벽이다.
동시에 여성/청년/노동이 일상으로 겪는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쉬운 참여’가 꼭 필요하다. 뭐부터 해야 할까?

류호정 의원 _ 형법개정안이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거든요. ‘공수처’나 다른 이슈로 강간죄를 외면하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대 양당들이 나아갈 수 없어요. 민주당이 성폭력 관련 법 개정보다 자기 당헌을 먼저 바꾸는 것이 놀라웠어요. 책임정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강간죄 개정부터 검토하지 않고, 후보부터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집권하는 건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를 묻고 싶은 거죠.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똑같잖아요.

여성청년지지자들은 드리내서 응원하시기보다 메시지나 DM을 보내주세요. “작지만 응원을 보냅니다.” “지치지 마시라고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제가 지칠까봐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걱정을 하시다가 메시지를 보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에 ‘나빠요’, ‘싫어요’ 이런 거 누르시고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웃음)



의원실 홍보팀에서 직접 제작한 <류호정 의원의 '비동의강간죄'가 필요한 4가지 이유> (유튜브 '류호정의 RYUTUBE')

저는 강간죄 개정안이란 포괄임금제 폐지 두 개를 대표발의했어요. 이제 2차피해방지법, 데이트폭력방지법 처럼 여성/청년/노동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법안을 준비해요.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현실이 ‘잘못된 게 맞다’고, 혼자 삭히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사회생활이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하고 혼자 참아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뭘 해야 할지 답답하고 무기력한 분 많지요? 내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되겠다. 싶은데 나는 심상정도 아니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기사 공유하는 것조차 회사 사람들과 시비 붙을까봐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라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제 영상*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상
"비동의강간죄가 필요한 4가지 이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간을 거스르다〉

온라인 전시장 오픈 그 후

아오리

,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간을 거스르다〉 온라인 전시장이 열렸습니다.
5인의 예술가, 9인의 친족 성폭력생존자, 50인의 지지자가 함께했습니다.
제작 후기를 프로젝트 참여 작가 아오리 님이 전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온라인 전시장 오픈 다음 날부터 오른쪽 검지에 통증이
왔어요. 마우스를 많이 썼구나 생각했죠. 10월에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정신없던 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 말에 가까워지는데 저의 손가락은 신
경까지 건드리며 아파져 오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신경외과로 옮겼습니다.
온라인 전시장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만든 이후 어떤 생각이 드는가?
등등 이런 궁금함에 답을 드리는 글이길 바라지만 아직 남아있는 통증으로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완성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기획과는 많이
달라져서 상상했던 것을 그대로 구현시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장은 친족 성폭력에 대한 잘 알지 못했던 5명의 작가들이 공부하




〈시간을 거스르다〉 온라인 전시장 내부

며 6개월 이상 작업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전시장에
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었어요. 참여자들이 만든 행성은 VR 기기를
착용했을 때 더 멋지거든요. 지지글은 전시장에서 AR로 구현하려고 했어요.
상담소에서 전시장을 제안해 주셨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과연 전시장에 얼
마나 오실까? 그 분들은 편안한 마음일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VR, AR 및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전시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링
크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전시장을 보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
는데……. 만들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고 윈도우 버
전만 현재 오픈한 상태입니다. 2021년에는 꼭 앱을 완성할 거예요.

이 작업에 도움을 주신 상담소 오매 활동가가 구글어스를 통해 세계의 미

투 운동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것처럼 3D로 쓴 지지 글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이길 바랐어요. 가상에서 시위할 수 있는 기획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 작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요즘 묻게 돼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성폭력 관련 이야기를 풀 때 출연자의 얼굴 노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쓰이고, 영화로만 반성폭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싶어요.

5명의 예술가와 9명의 참여자, 50명의 명의 지지자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작업에 대해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글을 남겨요. 새벽이거든요. 참, 내년에는 친족 성폭력생존자들의 AR이야기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닿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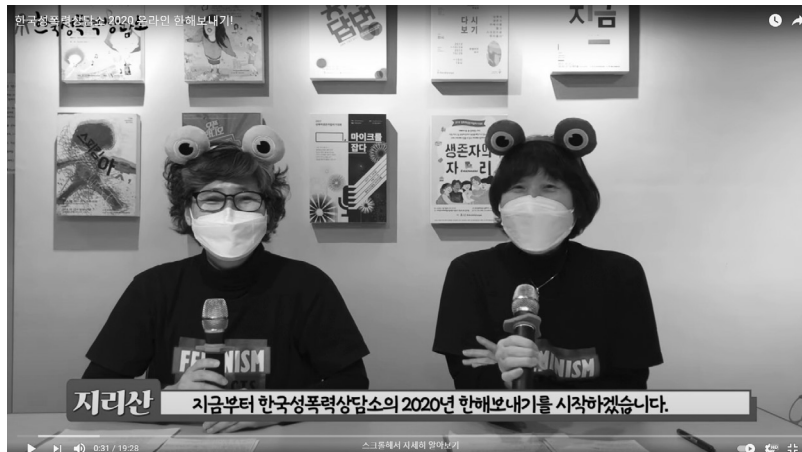
상담소 최초 시도, ‘온라인’ 한해보내기

수수_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9

매 년 12월엔 상담소 회원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함께한 분들과
소소한 송년회 ‘한해보내기’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시상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으면서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한해보내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권장 시대, 상담소가 처음 도전해본 온라인 한해보내기 후기를
열림터 수수 활동가가 전합니다

올해는 최초가 많다.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에티켓이 된 2020년이 아닌가. 이제 나는 꿈에서도 마스크를 챙긴다. 전 세계가 겪는 ‘최초’의 상황 속에서 ‘최초’의 도전이 많이 일어난다. 다들 상상력이 넘쳐흘러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쥐어 짜내어 ‘최초’의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슬픈 일이지만... 비대면이 상식이 된 시대에서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상담소 한해보내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험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로 활약한 환갑 맛이 두 활동가, 사자와 지리산

코로나→비대면→온라인. 여기까지는 익숙한 도식이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니까 한해보내기를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그러나 온라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연장선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라, 오프라인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적절한 번역 작업이 없으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영성해지기 마련이다. 거기다 온라인 세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영상 송출이 가능한 온라인 매체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개고,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획이 필요했다.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야 이 문제를 직면한 한해보내기 준비팀은 마음 속으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머리를 짜냈고, 유튜브 최초공개 형식으로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물론 제안자 닷별은 눈물을 좀 덜 흘렸을 수도 있겠다. 나는 유튜브 최초공개가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처음엔 상담소 회원들에게 상근활동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활동가들의 일상을 밀착 촬영해서 '상담소 생태관찰기'를 상영하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동료 활동가들에게 내밀었는데, 돌아온 평은 이런 콘텐츠로는 상담소와 함께 하는 회원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니, 여기서 뭘 더 해야 한다니!' 온라인 행사 준비로 이미 무거웠던 마음이 더 무거워졌지만, 그 평은 너무도 맞는 말이었다. 한해보내기 행사의 주요 목표는 회원들과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말이다.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회원들의 모습을 더 비추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기획을 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모았다.



온라인 한해보내기
다시보기

황급하게 추가 코너 기획을 하고, 출연진이 되어줄 여러 사람들을 바쁘게 섭외했다. 바쁜 제안임에도 흔쾌히 수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오프닝 코너에는 상담소와 함께 해온 자원활동가, 후원회원, 이사, 연대자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다. 다소 익숙한 코너이지만 뻔 수 없는 올해의 활동사진 코너도 있었다.

이 코너를 위해 사진을 훑어보니 정말 많은 자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도 많이 일어났으며, 상담소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의제와 사람들을 만나왔다는 것도 되짚을 수 있었다. 2020년 안젤라어워드는 상담소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기록을 백서로 만들어주신 자원활동가 가림님과, 부설 연구소 올림과 함께 '비대면 세미나'란 형태를 마스터 해버린 페미니즘신간 읽기소모임이 수상하였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 다소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 신선했던 '막간, 자기방어훈련' 코너에서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인 오매와 함께 마스크 속 입을 크게 벌려 목소리 내는 법과 언택트 악수를 가장한 '후려치기'를 훈련해볼 수 있었다. 상담소 공식 단짝이자 이번 한해보내기 사회였던

사자와 지리산은 기획팀인 나와 닳별을 볼 때마다 사회 보는게 너무 수줍다고 입을 모아 외쳤지만, 정작 카메라가 돌아가자 프로다운 모습으로 촬영자를 감탄케 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 당일. 오늘 함께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냐는 동료의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통의 오프라인 행사였다면 모두 함께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참여자들을 맞이하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한해보내기를 위한 준비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페미의꿈' 코너에 출연한 유랑, 신아, 주리 활동가는 공연에 앞서 목소리와 몸짓이 제대로 화면에 담기고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해주었다. 이번 온라인 한해보내기 준비에 대해 기록할 때, 영상편집 자원활동가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자원활동가 호찬님은 지인에게 컴퓨터를 대여하면서까지 활동사진들을 영상화해주었고, 은희님은 소중한 새벽시간을 영상 편집에 할애해주었다. 행사 준비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의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직접 만났을 때 감각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온라인에서는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사회 속 취약한 고리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음식점과 카페는 잘 꾸며둔 공간이 무색할 만큼 텅 비었다. 오늘의 저녁과 함께 방문한 배달노동자는 서툴게 카드리더기를 조작하며 '원래 일하던 곳이 3주간 영업 중단하게 되었는데, 놀 수는 없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공공시설은 수시로 휴관명령을 받는다. 열린터 생활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나 공공체육시설의 운동프로그램도 사라지고 말았다. 상담소 역시 휴관명령을 받으면 면접상담을 할 수 없다. 열린터에서 연계하는 정신과와 심리상담소에서도 최근 자해와 자



이번 한해보내기 최고 인기 공연 '페미의 꿈'

살시도를 하는 여성들이 급증했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한다.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하던 이들의 삶이 '비대면'과 '거리두기', '멈춤'으로 인해 위협받는 장면들이 뉴스 사회면에 '안타까운 사고'로 등장한다. 이런 장면들을 마주하며 "취약한 사람들의 존재기반이 전부 뜯겨나가도 모른 채 하며 서서히 소멸도록 방치하는 건 방역실패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함께 사는 친구와 나눈다. 안전한 기반들이 흔들리는 지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내고자 움직이는 것은 곧 생존을 위한 일이 되었다. 그 고민의 가운데에서 이번 '최초! 온라인 한해보내기'처럼 비대면으로도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

격월 활동가 인터뷰 후기

동료를 인터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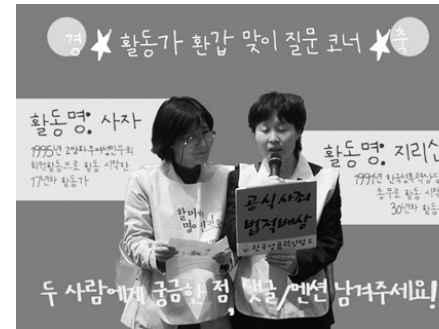
닷별_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2020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근활동가들을 인터뷰해서 글과 영상으로 발행했습니다.
'환갑맞이 활동가 질문 코너', '2030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2000년대를 기억하는 두 활동가의 인생곡선',
'활동가 영상 인터뷰-젠가 편', '셀프 인터뷰'가 그것인데요.
상담소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인터뷰를 기획한 닷별 활동가의 소회를 전합니다.

활동가 인터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활동가 인터뷰'는 활동가가 되기 전 저의 궁금증에서 출발했어요. "여성 단체 활동가는 어떤 사람일까?"였어요. 기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강간죄 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고 나오지만, 그 안에 강간죄 개정을 위해 직접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궁금증이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활동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마음을 확인한 덕분에 저도 신나게 기획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매달 한 번씩 한 문단정도의 인터뷰를 활동가들과 1:1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주 깊은 주제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터뷰를 한 문단으로 끝내는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이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월 기획으로 발행 주기도 바꾸고, 인터뷰도 주제와 컨셉에 맞게 상담소의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었어요.

기획하며 전달하고 싶었던 것

단순명쾌하게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렇게 재밌고 멋진 활동가들이 많다!"였어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저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이나 말버릇도 다 다른데, '다름'에서 오는 조합을 저만 알기 아까웠어요. 시대에서 오는 코드는 공유하고 있더라도 완전히 비슷한 경험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해결 방법도 다 다르고요. 활동가들이 뭘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로로 활동가가 되었는지, 상담소와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등등 '사람'에 초점을 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상담소 활동가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면, 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더욱 알아가고 싶어졌다면 기쁠 것 같아요.

8월 인터뷰까지는 제가 궁금했던 조합에 하고 싶었던 주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4월엔 상담소 소장 지리산, 열림터 원장 사자와 두 사람의 우정 케미를, 6월엔 연차 낮은 활동가 특집으로 연구소의 주리, 여성주의 상담팀의 유랑, 열림터의 낙타, 진행자이자 인터뷰어로 사무국의 제가 함께 '직업으로서 상담소 활동가'에 초점을 맞춰 보았고요. 8월에는 90년대 후반~00년대 초반의 대학사회와 상담소 자원활동을 경험한 오매와 감이의 인생사를 인터뷰했습니다. 4월 활동가 인터뷰는 꽤 반응이 좋아서, 제가 기획한 인터뷰를 보고 같은 컨셉으로 지리산과 사자가 신문 인터뷰도 2차례 했어요. 그 때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옛날 상담소 활동사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동료의 10년, 30년 전 사진을 활동가들과 공유하면서 놀라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내가 가보지 못한 현장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8월부터는 자원활동가 세린님과 승은님이 함께 기획/실무에 함께해 주셔서 더 재미있고 풍성한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조금 돈을 가볍게 가져가 보자! 고 생각해서 쟈랑 함께하는 영상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영상 촬영 자체가 처음이라 버벅일 때도 많았지만

세린님, 승은님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해 주셔서 혼자 했을 때 막혔던 지점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노력에 비해 조회수는 낮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
활동가 인터뷰
다시 읽기

이제 12월 인터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활동가 인터뷰>의 애독자라면 마지막 인터뷰까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새롭게 읽어주셔도 좋고요. SNS에 반응도 많이 남겨주시면 아주아주 행복할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재미있는 기획을 해 볼지 모르겠지만, 상담소와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에 만나요!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강소연, 강연하, 강재진, 강재희, 강지윤, 고선주, 고하영, 공다연, 공수현, 박보매, 구분호, 권세린, 권세윤, 권혜정, 김경진, 김규백, 김규민, 김규호, 김기로, 김나희, 김남준, 김다영, 김다은, 김민진, 김민섭, 김민정, 김민수, 김신아, 김신재, 김성모, 김성희, 김세원, 김수라,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현, 김신영, 김안나, 김영영, 김영택, 김영희, 김윤원,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희, 김경수, 김정형, 김주희, 김준, 김준범, 김지호, 김진리, 김재현, 김재영, 김현진, 김현주, 김현지, 김혜선, 김혜준, 김효숙, 김희영, 노성윤, 노윤주, 도정선, 류진희, 류현진, 류효정, 무안가게 쉬는시간, 문귀연, 문귀호, 문미정, 문혜준, 민혜영, 박기윤, 박문정, 박미나, 박민지, 박신영, 박소연, 박옥이, 박순환, 박숙희, 박시원, 박희희, 박원진, 박은선, 박재복, 박재민, 박종현, 박종현, 박주영, 박지민, 박지배,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희정, 박희정, 방성현, 배하늘, 배현진, 백수민, 백은영, 삼봉한의원, 서명숙, 서상환, 서진, 서현아, 서현아, 서정재, 송상열, 송성원, 손슬기, 송기범, 송명희, 송상민, 송유정, 송윤진, 신경숙, 신근철, 신영미, 신예슬, 심선지, 심혜림, 안경훈, 안슬, 안유정, 안희경, 양윤정, 양은희, 양정민, 양창아, 양혜석, 엄은지, 오세훈, 오윤하, 오종찬, 원종민, 원찬희, 위은지, 유병준, 유현승, 유혜진, 윤선우, 윤아름, 윤정선, 윤정희, 윤진희, 이강훈, 이경진, 이계화, 이동은, 이명희, 이미정, 이민기, 이민기, 이민기, 이민아, 이보배, 이상은, 이소희, 이수연, 이승은, 이예리, 이영미, 이영주, 이윤준, 이유나, 이윤진, 이은경, 이은정 프로덕션, 이은하, 이재호, 이정우, 이재훈, 이종은, 이종현, 이준희, 이지아, 이진모, 이진우, 이창수, 이창애, 이한은, 이현수, 이혜진, 인병규, 임규정, 임성윤, 임예은, 임은재, 임정수, 임정우, 임지연, 임지현, 임정, 장여경, 전유나, 정광철, 정기원, 정다희, 정선영, 정수연, 정순철, 정은주, 정영호, 정애, 정유민, 정은정, 장인원, 정재우, 정재하지윤, 정지수, 정지현, 정지혜, 정현우, 조민아, 조영주, 조영주, 조원영, 주소현, 주석회사통보, 주호준, 차민호, 차동건, 최승호, 최상환,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희, 최애스란, 최재우, 최종민, 최준호, 최현정, 최혜란, 최효선, 탁형민, 황기수, 하희정, 한민규, 한수경, 한윤미, 한윤호, 한진영, 허성준, 허예민, 홍은미, 홍지은, 황진선, 황위, (주)한샘 (이상 253명)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aalami, ssy,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궁내, 강김도, 강남식, 강동희, 강동록, 강민경, 강민녀, 강민지, 강보길, 강상현,
 강석진, 강성구, 강소희, 강수빈, 강수지, 강숙영,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요한, 강윤정, 강은진, 강인화,
 강창일, 강태원, 강희진, 제경문, 고금이, 고보경, 고봉설, 고성관, 고야모, 고은별, 고재경, 고경남,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희신, 공경희, 광경화, 광동욱, 광영화, 광옥미, 광윤이, 광하진, 광현지, 구민주, 구민희, 구지후, 구현모,
 구현지, 권경아, 권구홍, 권강현영, 권나현, 권다혜, 권서연, 권선경, 권소영, 권순, 권수현, 권수혜, 권인선, 권인숙, 권경,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효중, 금철영, 기독교위드유센터, 김애슬, 김은정, 김가림, 김가영, 김가현, 김강빈, 김경신,
 김경아, 김경주, 김경찬, 김경희, 김고은, 김광만, 김광진, 김광희, 김규원, 김금택, 김기해, 김길우, 김나연, 김나연,
 김나영, 김나은, 김난형, 김다미, 김다은, 김다혜, 김다희, 김다희, 김다현, 김대균, 김도린, 김도연, 김도엽, 김도윤,
 김도홍, 김희도,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두현, 김도사, 김나리, 김명빈, 김명선, 김도세, 김도영, 김문주,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래, 김미선, 김미순,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민규, 김민별, 김민우, 김민은,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태, 김민호, 김민환, 김보람, 김보명, 김보은, 김보화, 김복연, 김상태,
 김상원, 김상정, 김새롬, 김새별, 김서하, 김석주, 김선경, 김선미, 김선에, 김선영, 김선제, 김선하,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수, 김성욱, 김성자, 김세명, 김세윤, 김소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승연, 김송이, 김수, 김수민,
 김수잔,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원, 김순자, 김슬아, 김승재, 김승현, 김시연, 김시연, 김신아, 김안나,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양희, 김엘림, 김어진, 김연, 김연정,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재, 김연희, 김영나, 김영룡,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예리, 김예림, 김예지, 김옥주, 김요설, 김용선, 김용장, 김우람, 김우연,
 김원국, 김원식, 김유리, 김윤희, 김유영,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영, 김윤중, 김윤희, 김은경, 김은솔, 김은아,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문, 김재설, 김재원, 김재원, 김재호, 김재희, 김정민,
 김창아, 김창한, 김정은, 김정혜, 김종수(원상범)/리치몬드, 김종우, 김종웅, 김종희, 김주아,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원, 김지훈, 김지희, 김지후, 김준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진별, 김진아, 김진용, 김재연,
 김준하, 김지연, 김탁환, 김태영, 김태완, 김태현, 김하나, 김하나, 김하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원주, 김원지, 김원철, 김원진, 김영수, 김형수, 김혜경, 김해련, 김해리, 김해진, 김해순, 김해연, 김혜영, 김혜연,
김혜린, 김혜윤, 김혜은, 김혜인, 김혜정, 김혜지, 김해진, 김혜진, 김효준, 김희숙, 김효선, 김효은,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효현, 김희경, 김희경, 김희란, 나미나, 나선영, 나선은, 나운용, 나인선, 나혜선, 나희영, 남민영, 남병희,
남순아, 남승현, 남시우, 남유하, 남은영, 남윤아, 남인순, 남정현, 남지민, 남지은, 남지호, 남지영, 남현미, 남현우,
남현지, 남혜정, 남보경, 노미선, 노은이, 노영은,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의, 노지성, 노태운, 노태형, 노희섭,
다트리스(가), 도창옥, 도서관장 옥직여, 도정호, 류근자, 류노는, 류호을, 류두희, 마민지, 마명음, 마동혁, 박소희,
문경희, 문기진, 문미라, 문수연, 문웅경, 문운상, 문은혜,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홍중, 문후진,
문후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현, 박기민, 박기순, 박기완, 박나연, 박다위, 박대진, 박덕임, 박려욱, 박명선, 박명화,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보람, 박보영, 박보는, 박부진, 박상희, 박서진,
박서진, 박선영, 박선희, 박선휘, 박설희, 박성주, 박성준, 박성한, 박세민, 박세진, 박소리, 박소림, 박소영,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숙수, 박사랑, 박사름, 박사리(Park Aileen), 박영수,
박윤희, 박유미, 박윤성, 박윤숙, 박유준,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익수, 박인기, 박재민, 박재현,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용, 박종희, 박주현, 박준숙, 박준영, 박지나,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도,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희, 박진이, 박진표, 박찬희, 박창경, 박초롱, 박한샘, 박학빈,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남, 박혜하, 박효인, 박희정, 박희주, 반산비, 반주영, 방기연, 방은제, 배경, 배도준, 배맹진,
배상영, 배셋별, 배성민, 배성신, 배은희, 배우미, 배은경, 배지하, 배진영, 백경민, 백광은, 백미륵, 백새열,
백성길, 백성숙, 백성진, 백세희, 백운사, 백인애, 백지선, 백지연, 백전, 백범, 범무사 강강호사무소, 변승민, 변승환,
변주희, 변지은, 변지향, 서권일, 서다희, 서도원, 서명호, 서미현, 서민지, 서보일, 서순진, 서연희, 서용안, 서원, 서윤정,
서인석, 서정갑, 서정에, 서정표, 서재유, 서지는, 서채령, 서태자, 서현아, 서혜미, 서혜진, 선우준, 산재희, 신희갑,
설연자, 설유진, 성기원, 성영인, 성예량, 성지수, 소희성, 손경이, 손다래, 손명규, 손미선, 손미연, 손미정, 손소희,
손수민,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손지민, 송다운, 송석진, 송승환, 송충훈, 송용원, 송유진, 송인경, 송지영,
송진아, 송차령, 송현민, 송형민, 신경록, 신경혜, 신고윤, 신다희, 신동현, 신망숙, 신민정, 신상호, 신석진, 신성룡,
신수아, 신유정,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선, 신지혜, 신진, 신평규, 신한나, 신한솔, 신현, 신현정, 신헌현,
신훈미, 신훈숙, 신히린, 심다른, 심정보, 심승주, 심아영, 심조원, 심혜련, 심효진,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원숙,
안이, 안윤아, 안윤정, 안재훈, 안정규, 안정현, 안지희, 안창하, 안첼민, 안춘기, 안태희, 안형울, 양경아, 양도훈, 양동현,
양민희, 양선희, 양성옥, 양성은, 양수나연, 양소희, 양현정, 양현구, 양호준, 어진희, 엄현정, 엄휘수, 여은진, 여지은,
여건아, 오경민, 오경은, 오성은, 오동식, 오선곤, 오소하, 오소흥, 오세희, 오수연, 오진, 오주은, 오모진, 오승인, 오승이,
오연경, 오영일, 오유미, 오의석,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진이, 오현석, 오현정, 오현주, 우석현,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촌희, 우혜림, 원경주, 원민정, 원성혜, 원순경, 유경미, 유경빈, 유경희, 유도삼, 유보람, 유서연, 유선영,
유성혜, 유세정, 유수연, 유승규, 유승민, 유승민, 유승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인규,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필일, 유하나, 유현미, 유형하, 유호정, 윤나래, 윤다정, 윤다희, 윤법석, 윤소미,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수련,
윤수진, 윤숙경, 윤승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국, 윤영호, 윤용호, 윤은정, 윤자영, 윤정현,
윤정의, 윤지원, 윤지원, 윤재영, 윤현아, 윤형심, 윤희영, 음선화, 이강화, 이견정, 이정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호,
이경호, 이계형, 이귀환, 이규리, 이규호, 이규하, 이기백, 이나연, 이나영, 이나일, 이난주, 이담주, 이다정, 이도엽,
이지영, 이동원, 이동훈, 이상숙, 이명선, 이명현, 이민주, 이미경, 이미래, 임미하, 이보미, 이부덕, 이산, 이상문, 이상미,
이상기, 이상민, 이상용, 이상희, 이재를, 이서연, 이서영, 이서정, 이서희, 이선영, 이선택, 이선희, 이희희, 이희라,
이성은, 이성주, 이세나, 이세란, 이세민, 이세영, 이소라,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수만, 이수월,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하, 이승기, 이슬아, 이승규, 이승숙, 이승준, 이승진, 이승훈, 이승훈, 이여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지, 이연표,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육민, 이원택,
이용택, 이우현, 이원규, 이원영, 이원필, 이원형, 이원홍,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심, 이은애, 이은지, 이장우, 이재원, 이재원, 이정민, 이정순, 이정야,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종연, 이종희, 이종희, 이주연, 이주현, 이주혜,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는, 이지은, 이지언, 이지혜, 이지훈, 이진선, 이진술, 이진아(사벌), 이진희, 이찬휘, 이재영,
이하연, 이하영, 이하은, 이하사랑, 이해원, 이하실, 이현미, 이현우, 이현주, 이현주, 이현하, 이현하, 이현희, 이혜경,
이혜인, 이혜진, 이희선, 이희선, 이효은, 이효은, 이효린, 이희동, 이희석, 이희수, 이희하, 이희진, 임건호, 임건호,
임정진, 임금희, 임기택, 임시정, 임설아, 임소정, 임승연, 임영정, 임우주, 임유영, 임유진, 임은규, 임주희, 임지수,
임지영, 임천용, 임하나, 임효진, 임홍섭, 임희윤, 장다혜, 장도희, 장미정, 장성의, 장수경, 장수진, 장연경,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재, 장은주, 장정윤, 장정희, 장주리, 장주희, 장지승, 장진, 장혜란, 장혜린,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소연, 전소영, 전소율, 전수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은유, 전은재,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지혜,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경직, 정광, 정교화, 정기영, 정나리, 정다소, 정대근, 정탁기, 정동연, 정두리, 정두영, 정문영, 정미경, 정미사, 정민성, 정민수, 정민이, 정민희,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복선, 정상순, 정소린, 정송이,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예슬,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유정, 정윤경, 정은선, 정은아, 정인호, 정정기, 정종원, 정종인, 정주성, 정준애, 정지윤,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지혜, 정지훈, 정진옥, 정진주, 정진화, 정현, 정현철, 정혜윤, 정혜훈, 정희수, 정희정, 제하나,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명준, 조무호, 조민우, 조서연, 조선우, 조선주, 조성민,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순영, 조승주,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유빈, 조유진, 조윤서,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연,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혜연, 조현규, 조혜민, 조혜인, 조훈재, 주광용, 주담기공소, 주명희, 주희진, 지성엽,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인순, 지현, 진명선, 진새록, 진수희, 진재호, 자성안, 차소영,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유리, 채은혜, 채훈병, 천정아, 천정환, 천주원, 최강배,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대연, 최동석, 최란, 최문영, 최미림, 최미숙, 최민우, 최민정,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성실,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수림, 최수연, 최숙희, 최승찬, 최아림, 최여정,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원일, 최유정,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지, 최정은, 최지너, 최지원, 최지은, 최진경, 최진란, 최찬양, 최현윤, 최현정, 최혜린, 최혜영, 최희범,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탁윤태, 권휘경(하연주), 표하늘, 표혜림, 하다영, 하를, 하승표, 하연수, 하유림,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하지은, 하태준, 한기보, 한만천,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보라, 한소망, 한승진,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예슬, 한유림, 한지숙, 한재윤, 한혜영,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라금, 허선형, 허성희,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지혜, 허재영, 허태근,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아현, 홍예민, 홍유진,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진경, 홍찬숙, 황미선, 황선미, 황선유, 황성기, 황성옥, 황성임, 황송림, 황송희, 황예나, 황인술, 황재일, 황정진, 황준하, 황지영, 황혜림, (주)피알판죽 (이상 1,277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일, 강명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경현, 김병문,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엘, 김지은, 김효신,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박민란, 박성환,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이덕화, 이를, 이문희, 이상화, 이우열, 이유미, 이우정, 이해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련, 정명중, 조인석, 조일래,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풍지팩토리 (이상 60명)

▶ 생활인들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식, 강보미, 강소영, 강은재, 고병진, 고화정, 곽선하, 금보경, 김광현, 김나래, 김남희, 김도형, 김도희, 김문주, 김마우, 김미진, 김미향, 김민성, 김보라, 김선환, 김소라, 김소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잔, 김신아, 김아리, 김여진, 김연순, 김원오, 김유숙, 김유엘, 김유정, 김윤혜, 김이슬, 김주연, 김지국, 김지완,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해나, 김혜연, 김혜진, 김효은, 김효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영미, 노유민, 노하연, 류수민, 류종현, 목소희, 문숙영, 미씨유림, 민슬기, 박계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종, 박아름, 박영익, 박우영, 박인필, 박정숙,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박혜민, 박혜선, 박효정, 배정원, 백미순, 백상준, 서범원, 서영민, 서혜인, 성주희, 손정은, 송미현, 송민정, 송지영, 송화미, 송희원, 신정혜, 신영미, 신용범, 심연희, 심진섭, 심현실, 안분순, 안효신,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엄다희, 엄정신,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준, 유선옥, 유예리, 유진영, 유재원, 유희선, 이경선, 이경아, 이다윤, 이도형,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연, 이상아, 이수정, 이슬아, 이어진, 이영지, 이옥영, 이윤석, 이은정, 이정화, 이종국, 이주설, 이주혜, 이준용, 이지영, 이자애, 이찬희, 이태복, 이향실, 이향화, 이형찬, 이혜림, 이혜진, 임나영, 임수연, 임수현, 임유영, 임윤정, 임지연, 임지현, 임지선, 장경준, 장다혜, 장명환,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혜영, 정고은, 정다연, 정민석, 정민애, 정선희, 정순희, 정은경,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수, 정하나, 정현주, 조민정, 조영래, 조윤기, 조윤서, 조은희, 조중신, 조현아, 주혜명, 진보영, 진수희, 채송희, 최강현, 최성희, 최세은, 최수연, 최영주, 최윤미, 최정림, 최정임, 최정희, 최희진, 추연정, 표아림, 한영규, 한예림, 한진희,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재량, 허지선, 홍난영, 홍윤기, 황동하, 황은순, 소름티미스트 서초클럽, 한국아마자카마작(주) (이상 207명)

▶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ssr, 강가람, 강민성, 강부영, 강성우, 강성준, 강성중, 강슬기, 강은겸, 강주형, 강준형, 강지현, 고선영, 고진경, 공주, 광정은, 구재일, 권길현영, 권다소, 권영재, 권유진, 권정우, 권주연, 권재형, 권혁주, 김정년, 김정은, 김고은, 김관희, 김규민, 김규진, 김기로, 김기훈, 김남희, 김다영, 김다현, 김다희, 김도희, 김리나, 김미경, 김미혜, 김민아, 김민주, 김민형, 김보라, 김보화, 김상인, 김소영, 김소현, 김수연, 김수현, 김신아, 김아민생일츠키해, 김양신, 김영선, 김영주, 김예원, 김요설, 김요설, 김유리, 김유엘, 김윤정, 김은결, 김은비, 김은정, 김은지, 김재민, 김정수, 김정우, 김정환, 김정환, 김중현, 김주아, 김주연, 김지성, 김지은, 김지은, 김찬솔, 김태현, 김한주, 김해나, 김해인, 김현정, 김혜정(오매), 김혜준, 김호정, 김효정, 나윤경, 남아름, 남혜민, 남효정, 노길용, 노선이, 노승우, 노태곤, 레드스타킹, 류수민, 류재정, 류후남,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무기명, 민천홍, 박남명, 박마리, 박민지, 박상희, 박상희, 박서희, 박선은, 박소영, 박수곤, 박수희, 박시원, 박아름, 박양준, 박옥경, 박지영, 박정남, 박준영, 박준영, 박지희, 박진선, 박찬양, 박찬은, 박현순, 박효인, 배운서, 배진영, 배한주, 배현주, 배혜림, 배혜지, 백성숙, 백승우, 변윤정, 뽀니, 서예진, 서준형, 서혜민, 서효원, 석지은, 성영아, 손경숙, 손승영, 손여진, 손희정, 송경림, 송아람, 송영준, 송형국, 송화림, 신나라, 신송희, 신승은과 토마토당, 신정아, 신희승, 심순지, 심재경, 심자용, 안가연, 안민호, 안소영, 안원숙, 안정현, 양다애, 양송은, 양현경, 양현우, 양형배, 엄예진, 엄은지, 엄은지, 여충원, 오승룡, 오유진, 오주연, 오창익, 오현주, 오혜진, 오희진, 왕사오, 우윤지, 우지민, 우창민, 우한솔, 원민지, 원은깁 일동, 유명화, 유미경, 유민준, 유종대, 유하나, 유호정, 윤세원, 윤재영, 이건호, 이경은, 이경희, 이나연, 이동근, 이문희, 이미경, 이민경, 이민영, 이민옥, 이민제, 이민하, 이민하, 이상규, 이상희, 이서현, 이서희, 이선영, 이성은, 이수동, 이수빈, 이수현, 이슬기, 이승주, 이신아, 이연주, 이영희, 이원재, 이윤수, 이윤혜, 이은영, 이은정, 이재경, 이재호, 이정민, 이정연, 이정현, 이재훈, 이종미, 이종석, 이종수, 이주연, 이주연순슬기,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지혜, 이진순, 이학미, 이한은, 이혜석, 이현화, 이희화, 인생주, 임민경, 임세은, 임수민, 임은수, 임인자, 임희원, 장수지, 장연주, 장우리, 장정연, 장재민, 장주리, 전다정, 전민희, 전순유, 전은경, 전은경, 전현지, 전혜영, 정다희, 정민정, 정민정, 정서우, 정선재, 정성영, 정수연, 정수정, 정수현, 정영훈, 정원하, 정유진, 정은영, 정정희, 정지혜, 정진수, 정현주, 정혜진, 정혜진, 조진영, 조봉규, 조성정, 조수아, 조영훈, 조유진, 조은희, 조일래, 조진서, 조진호, 조혜원, 조환석, 주요경, 최락옥, 최상미, 최아연, 최영철, 추미정, 추서연, 추현송, 추혜인, 탁솔, 피현진, 한소망, 한승주, 한지영, 허경진, 허윤민, 혜영, 홍미미, 홍미소, 홍상희, 황보람, 황지원, 강남에듀학원, (주)문학동네, 존타클럽, 주식회사 스타카토, 주식회사 이봄, 반포고등학교(중국어 수강 학생 모임), 림토이름 천안점, 코니(주식회사 베이글) (이상 330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도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닥별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낙타 02-338-3562, yeolim94@sisters.or.kr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개굴님의 귀하고도 특별한 이태리제 레몬사탕
곽혜선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 40병
곽혜선님의 배려 넘치는 친환경 감귤 한 박스
권정 변호사님의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케이크
김명수님의 삶의 질 올려주는 상황, 영지버섯과 발효농축액
김미순님의 상담소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담은 기정떡
김성자님의 맛, 건강, 행복 모두 잡은 인동 사과 한 박스
김수님의 에너지 넘치는 롤케이크 두 박스
김수찬님의 얇은 자리에서 다 먹게 만드는 감귤 한 박스
김영선님의 증독을 부르는 한과
김지은님의 달콤쌔름 녹차 롤케이크
김혜경님의 인기 조흔 딱(딱한)복(숭아)
나연님의 맛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레몬차와 한라봉차
나희경님의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는 커피원두 한 봉지
도미님의 딱끈한 쿠키와 빵, 스콘 두 봉투
류준화님의 빛나는 황금 사과 한 박스
박수진님의 크고 맛있는 한라봉 한 박스
박신영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길러만 초콜릿
박영숙님의 행복에 취하게 만드는 와인 세트
서윤정님의 활동가들을 깨우는 커피 원두 한 봉지
섬세희님의 비타민 가득 과일주스
송이님의 눈 반짝 뜨게 하는 곤트란 셰리에 빵
윤영수, 이슬기님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지원 더 힘내라며 수박과 복숭아
이경아님의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 두 박스
이명희님의 겨울을 든든하게 만드는 예쁜 겨울조끼 30벌과 패딩 2벌
이명희님의 맛있고 센스 넘치는 피자 5판과 통닭 5마리
이주영님의 후두가 쿡쿡 박혀있는 후두과자
장혜선님의 건강에 좋은 사과 한 박스
정화님의 아버지표 벌꿀 1통
정화님의 활동가들의 일용할 양식 토마토 소스, 알감자, 숯 파스타면
최지은님의 맛있는 다과
토리님의 입만 가득 행복 가득, 마카롱 두 박스
허목옥님의 상큼함을 채우는 주스 한 박스
허오영숙님의 맛있거 건강한 유가농 굴 2박스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오후를 깨우는 케이크와 빵 그리고 단짠단짠 도너츠
(아름다운 재단)의 바삭바삭 쿠키
(위밋업 스포츠)의 센스 만점 단킨도너츠 한 박스
(정의기억연대)의 과일 가득 바구니, 힘이 나는 홍삼액 두 박스
(젊은여운포럼)의 힘을 주는 커피
(러쉬코리아)의 통 큰 컴퓨터 10세트와 바디 제품 25개
(한국여성민우회)의 동글동글 후두과자 1박스

{ 열림터 }

박미진님의 겨울하면 생각나는 식재료 고구마 20키로
서범원님의 스펀지 못지 않은 밥도둑 참치
여라님의 코로나시대의 필수품 K94마스크와 방역마스크 1,400개
임순택님의 밥도둑 스펀지
최영애님의 든든한 밥상을 책임져 줄 송추굴갈비구이 5키로
(위밋업 스포츠)의 감사하고 든든한 중 대형 생리대 424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응원의 마음을 담은 생리대 12개들이 48팩